

고물가에 달린 소비심리 진작 나선다

유통가, 간편식·멤버십으로 위기돌파

대형마트, 차례상 비용 4%↑
간편식 판매 가짓수 늘리고
멤버십 할인으로 경쟁력 확보

올해 설 차례상 준비 비용이 최대 6.3%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유통업체가 바빠졌다. 대형마트 업체 등은 전통시장이나 온라인 장보기 e커머스 등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간편식 판매 가짓수를 늘리고 각종 멤버십 할인 혜택을 최고 수준으로 준비해 가격 경쟁력 확보에 나섰다.

8일 <메트로경제> 취재를 종합해보면,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2주 앞두고 고물가 현상에 소비심리 위축을 걱정한 유통업체가 소비심리 진작과 모객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이날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발표한 설 차례상 준비 비용은 대형마트는 전년 대비 4.0% 오른 27만9326원, 전통시장은 6.3% 오른 22만8251원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에서 차례상 장을 보면 대형마트에 비해 약 18% 저렴한 가운데, 특히 과일류(19%)와 축산물(25%)의 가격차가 가장 컸다. 밀가루와 부침가루 등 가공식품은 대형마트가 좀 더 싸게 나타났다.

과거 대형마트 등의 명절 경쟁상대는 전통시장이었지만 최근엔 경쟁자가 늘었다. 명절 상차림을 주도하는 50대 이상 고객들을 놓치면 안 되는데, 팬데믹 이후 이들이 온라인 장보기를 경험해 e커머스가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른 것이다. 지난해 신한카드 빅데이터 연구소가 2019년과 2021년 신한카드 고객들의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50~60대의 온라인 업종(배달 애플리케이션, 신선식품 몰) 이용이 2년 사이 50대 110%, 60대 142%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과 e커머스에 맞서기 위한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5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할인지원을 받는 한우를 고르고 있다. /뉴시스

방법으로 꺼내 든 것은 간편식과 멤버십 할인혜택이다.

매년 밀키트나 간편식을 이용한 명절 상차림 비율이 늘고 있는데, 물가가 최고 수준으로 오른 올해는 어느 때보다도 이용 고객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크루트가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설명절 스트레스 비율은 40.5%가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는데, 47%에 달하는 사람들이 명절 지출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차례상 상차림 준비에 대해서는 '간소화 없이 차례 음식을 직접 만들 것'이라는 응답이 28.7%, '아예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4.6%로 나타났다. '간소화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 중 9.6%는 '간편식 또는 밀키트 제품으로만 차릴 것'이라고 했고, 응답자의 46.7%는 '직접 만들고 간편식·밀키트도 일부 활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음식 가짓수를 줄일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0.4%였다.

이런 가운데 롯데홈쇼핑은 오는 18일까지 프리미엄 주방용품, 먹거리 등 명절 선물 상품과 최근 트렌드를 고려한 간편식을 집중적으로 선보이는 '설마음 한 상' 특집전을 진행한다. 최근 선호도가 증가하는 주방 인기 브랜드

와 프리미엄 먹거리, 간편식 등을 사전에 대량 확보해 집중 편성하며 행사 기간 중 구매 횟수와 주문금액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적립금을 제공한다. 롯데홈쇼핑에 따르면 지난 추석 간편식 주문량은 직전 명절인 설과 비교해 50% 늘었다.

사전 확보 물량을 개방해 적정가를 맞추고 멤버십 고객에 대한 할인 혜택 끌어올리는 노력도 있다. 정부 할인지원도 적극 홍보 한다.

홈플러스는 10일까지 다양한 먹거리와 명절 준비에 필요한 상품 등을 고객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 50% 할인한 최저가로 선보여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확실히 낮춘다는 방침이다. '갈비페스티벌'과 '설맞이 브랜드 주방대전'을 개최해 멤버십 고객에 대해 갈비전 품목 최대40%, 주방용품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준비했다. 마이홈플러스 멤버 대상 농협안심한우 곱거리는 50%, 1등급이상 일품삼겹살/목심은 20% 할인하고 삼겹살과 목심의 경우 '농할 쿠폰' 추가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최근 수요가 증가하는 밀키트 60여 종도 최대 6000원 할인해 선보인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日 정부 “징용 문제 관건” 尹, 5월 G7 참석 ‘주목’

日, 尹 대통령 초청 방안 검토
“한일·한미일 협력 중요해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5월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할지 주목된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오는 5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하는 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실현을 위해 G7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동맹국과의 결속을 내세우기 위해 윤 대통령의 초청이 유력시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패권주의적 행동을 강화하는 중국과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북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대처가 요구되는 가운데 민주주의와 법치 등 가치관을 공유하는 한일·한미일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 측도 G7 정상회의의 참가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으며 참석이 실현된다면 양국의 협력 강화를 대내외에 알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지난해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중국과 북한에 대한 배려가 눈에 띈 문재인 전 정부와는 달리 대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 연말 대통령실이 발표한 인도-태평양전략에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해 미국·일본과 보조를 맞췄다고 분석했다.

다만, 요미우리는 양국의 주요 현안인 징용 배상 문제 해결 상황에 따라 윤 대통령의 초청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일본 측이 한국 측에 민감한 징용 문제와 윤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초청을 결부시켜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 외교부는 오는 12일 한일의원연맹과 함께 징용 문제 해법을 논의하는 공개 토론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피해자 측은 일본 피고 기업의 재원 조성 참여와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를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배상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한국 정부에 해결을 요구하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박정 기자 pathfinder@

中 리오프닝에 꺾S23 등 반등 기대감도

>> 1면 '4분기 실적 공개'서 계속

예상보다 실적 감소폭이 컸던 대신 회복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중국 시장이 다시 열리는 데다가 갤럭시S23을 시작으로 안드로이드 진영 플래그십 경쟁도 다시 재개될 전망이다. 스마트폰 교체 주기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모처럼 고성능 제품이 출시되면 수요도 크게 촉진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문제는 경제 사정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전세계에서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인상을 이어가겠다는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그나마 지난해 12월 고용보고서에 임금과 실업률이 안정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등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안정적으로 발표되면서 '연착륙'에 나설 가능성도 적지 않다. /김재용 기자 juk@

ZOOM

들여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영양군
YEONGYANG-GUN

숲

한겨울의 자연이
조지방에서 겨울을
맞이합니다.

길

한겨울의 자연이
조지방에서 겨울을
맞이합니다.

빛

한겨울의 자연이
조지방에서 겨울을
맞이합니다.

엔

한겨울의 자연이
조지방에서 겨울을
맞이합니다.

맛

한겨울의 자연이
조지방에서 겨울을
맞이합니다.

심

한겨울의 자연이
조지방에서 겨울을
맞이합니다.

영양 들여다보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솟습니다
영양으로 오세요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ida
INTERNATIONAL DARK SKY ASSOCIATION
IDA
IDA

- 영양의 자연_일월산, 선비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참벽공원, 죽백수원, 외씨버섯길
- 영양의 역사_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심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경산성, 묵신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_영양국제반하늘보호공원,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생화공원, 영양몽골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양양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